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8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1년 3월 31일(수)

15대 심수관, 일본 가고시마 명예총영사 되다 한일 정부 합의로 3월 16일 임명...작고한 14대 심수관에 이어 영예



駐鹿児島名誉総領事 委任状 伝授式

2021年3月16日(火) / 駐福岡大韓民国総領事館

15대 심수관 일가(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3월 16일 대한민국 후쿠오카총영사관에서 이희섭 총영사(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로부터 명예총영사 위임장을 받았다. 15대 심수관 일가의 왼쪽은 아들인 제16대 심수관 예정자

일본 가고시마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도자기 명문 사쓰마야키(薩摩焼)의 종가 15대 심수관(65)이 3월 16일 가고시마 명예총영사로 임명됐다. 제14대 심수관 선생에 이은 영예이다.

15대 심수관은 <청송심씨종보>의 취재에 대해 “82만 명이 넘는 재일한국인 중에서 유일한 명예총영사가 심문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대단

히 기쁘다”면서 “심문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곳보다 종보에 보도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15대 심수관은 명예총영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모두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아주 많다”며 “일본과 일본인들에게 한국을 이해시키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명예총영사는 정식 외교관은 아니지만 신망과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때문에 민간인로서는 큰 영광이다. 14대 심수관 선생도 1989년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총영사로 임명돼 2019년 6월 작고할 때까지 총영사로 일했다.

<심규선 종보편집장>

[10면으로 이어짐/11면에 관련기사]



4월 6일 미야마 공방에 걸 명예총영사관 현판

A28 제30961호

피플 & 투데이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동아일보

15대 심수관, 한일 복원 민간외교관 나선다

<일본에 정착한 조선 도공의 후예>

가고시마 명예총영사로 임명돼 14대 심수관 이어 대이 활동
징용배상 판결 뒤 후임 임명안하다 후쿠오카 총영사관서 절차추진
日외무성 등의... “한일관계 회복 신호”



일본 도자기 명가이자 조선 도공의 후예인 심수관 가문의 15대 심수관이 2015년 10월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 가문의 후손들은 선대의 이름을 계승해 사용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일본에 정착한 조선 도공의 후예인 15대 심수관(沈壽官·65)이 일본 가고시마 명예총영사로 임명돼 16일부터 활동에 나선다. 2019년 작고한 14대 심수관의 뒤를 이어 명예총영사로 임명돼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15대 심수관의 아버지 14대 심수관은 1989년 한일 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

다. 지난달 일본 외무성도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하면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외교가에선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15대 심수관은 400여 년 전 조선에서 온 도공 심당길의 15세손으로, 심수관 가문은 423년 동안 도자기 명가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메이 자유신 때 가업을 빛낸 12대 심수관을 가려 이후 자손들이 ‘심수관’이란 이름을 계승하고 있다. 15대 심수관은 일본의 명문대인 와세다대 교육학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가업을 잇기 위해 교토와 이탈리아, 경기 이천 등지에서 도예를 공부했고 1999년 1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았다.

15대 심수관은 2013년에는 경북 청송군의 명예군민이 되는 등 한일 교류에 지속적인 관

15대 심수관의 명예총영사 임명소식을 전하고 있는 동아일보 3월 12일 자 지면

꽃동산 향기가 가득~



沈영감 심민섭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청심장학회는 3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제3회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더욱 정진하여 희망하는 목표를 이루고, 심문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자 모두가 우수한 인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

청심장학회, 미래와 국가 짝어질 제3기 장학생 15명 선발

심준석		덕수고등학교 2년	뛰어난 신체조건(193cm)에서 나오는 강속구(154km)와 다양한 구질을 갖고 있는 초고교급 투수
심명우		대전 명석고등학교 2년	공동체의식을 유도하며 반장으로서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고 성실함. 성적도 뛰어난.
심연재		미국 파이오니아 헤리티지 중학7학년	미국 텍사스주달라스에 유학중. 전미음악교사협회 전국경연대회(MTNA · National Conference)에서 주니어 목관악기부문(플룻)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음.
심승범		파리1 소르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후, 현재 프랑스에서 형사법의 심화연구를 통해 국내의 형사법 비교법적 검토 등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음. 장래목표: 법학자(형사법)
심소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유능한 연구자를 목표로 수학중임.
심재봉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대중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최고의 실력을 갖춘 R&D 분야의 전문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음.
백조은		미국 코넬대학교 의과대 1년	미래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의학과 의술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노력 중이며, 테레사 수녀처럼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술을 베푸는 의료 선교사에도 관심이 많음.
심준용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2학년	울산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졸업했고, 대학에서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음. 장래목표: 사이버국방을 책임질 고급 인재, 교수.
심지나		Johns Hopkins 대학교 3학년	의학분야중에서도 특히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세계 1위의 의대인 Johns Hopkins 의과대학원에 진학해서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자 함.
심재승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2학년	환경오염, 에너지와 물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융합환경기술을 제시하거나 공학기술과 융합해서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이끄는 융합인재를 꿈꾸고 있음.
심혜린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3학년	제3세계 국가의 인권유린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더 좋은 국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제통상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함.
심창범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호주 연구원	AI시대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교통, 범죄, 국방, 의료 등 대국민 서비스 필수분야의 최신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심영민		고양예술 고등학교 3년	한국무용전공, 제38회 전국국악대전 고등부 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다수 수상
박정빈		세종과학 예술영재학교 3년	수학, 과학에 탁월한 재능,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대표선발. 장래목표: 반도체 공학자
심재훈		세마고등학교 3년	전교 1등, 장래목표: 외과의사



심문과 결혼했습니다(1)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명문가에 장가들어 성공했으니 아내에게 감사할 따름”

요즘 심문과 대중회가 실천하고 있는 철학 중의 하나가 심문을 넘어 동시대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를 위해 청심장학회가 성씨가 다른 인재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청송심씨종보>도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심문과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위와 며느리 등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이번 종보는 그 첫 번째로 임종식 경북교육감(66)을 만나봤다.



“경북교육 비전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삶의 힘’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작은 우주’이기도 한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는 차별받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요.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따뜻한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재직 시 이룬 업적 중 꼭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유공자 후손인 고등학생 등과 만주 독립운동길을 순례한 일입니다.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든 독립운동길을 걸으며 나라 사랑 교육은 교과서를 넘어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시 중단했으나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독립운동길 순례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혹 다른 할 말이 있다면 해 달라는 질문에 “학문이 높은 선비를 많이 배출한 심문의 사위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듯하다. 명문가의 사위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의를 차릴 줄 아는 그는 명문가의 사위답지 않고, 이미 명문가의 사위이다. (심규선 종보편집장)

임종식 교육감이 걸어온 길

고교 시절 흥사단에 입문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영향을 받아 교육자의 꿈을 꾸었다. 경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영덕중, 안강중, 경주여고 등 5개 중고교 교사, 포항고 교감, 영창중 교장을 역임했다. 4만 경북 교직원 연수를 담당하는 경북교육청 연수원 교수부장, 원장, 경북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교육국장 등 교육전문직을 두루 거쳤다. 안동대, 경북대 등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경북미래교육연구소 대표도 지냈다.

-심문의 사위가 되고 나서 심문에 대해 갖게 되거나 바뀐 생각이 있다면.

“세종 왕비 소헌왕후 등 조선 시대 왕비를 많이 배출한 명문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위가 되어 조금 더 살펴보니 문과급제자가 200명이 넘고 근현대에 와서도 많은 인물을 배출한 명문임을 알게 되어 장가를 잘 들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평소 아내의 모습을 보며 역시 심문의 딸은 다르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평소 부부생활에서 심문을 의식하거나 심문을 화제로 이야기한 적은 있는지요.

“교육감이 된 이후에는 아내의 조용한 내조에 늘

감사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만나게 된 고마운 심씨분들에 대해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심문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처조모님이 저와 같은 임(林)가이신데, 아내로부터 어릴 적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덕을 좀 보았습니다.”

-경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부인 심규순여사와 임종식 교육감의 다정한 한때

심규순 여사에게 “남편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남편 흥을 보기는 쉬우나 막상 좋은 점을 자랑하려니 어색합니다. 학창 시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다양한 운동, 동아리, 학생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도 대학에 진학한 열정과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결혼 후 교육에 대한 애정과 소신을 옆에서 지켜보며 교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대적 상황에 편승해서 친구를 좋아하고 학교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안타까워 대학원 진학을 권했던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연수원장이 되어도 국장이 되어도 교육감이 되어도 변함없이 ‘청고근졸(淸高謹拙)’이라는 가훈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믿을 만합니다. 교육감이 된 이후 능력을 발휘해서 경북교육을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8)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문무겸전의 의병장

호남의 대표적 의병장이었던 22세조 심남일(沈南一) 할아버지(1)



沈厚燮
아동문학가/대구문인협회장

윤보야, 너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니?
전남 함평에는 '남일심수택의병장기념관'이 있고, 광주광역시 광주공원에 '의병장남일심공순절비(義兵將南一沈公殉節碑)'라는 큰 비석이 우뚝 서 있어. 이 비석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 제50-1-8호인데,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써어있단다.



의병장남일심공순절비(광주공원)

이 비는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전과를 거두고 순국한 심남일 의병장의 뜻과 행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심남일(沈南一, 1871~1910)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켜 강진, 퇴계원, 남평, 나주 등지의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1909년 5월에는 안규홍(安圭洪) 의병진과 합세하여 일군(日軍)을 섬멸코자 하였으나, 의병해산의 조치가 내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어 1910년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 안내판을 보면 남일 할아버지는 나라가 위협에 빠졌을 때, 용감하게 일어나 의병 활동을 하고 마침내 장렬하게 순국하셨음을 알 수 있어. 그런데 고향 함평이 아닌 광주에 왜 이 비석이 서 있을까? 그건 남일 할아버지의 손자인 심만섭 님께서 조선대학교에 다니면서 연탄배달로 푼푼이 모은 돈을 광주 향교로 보내셨기 때문이지. 그러자 다른 유명인사들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태 이 비석을 세울 수 있었다. 남일 할아버지의 고향인 함평 월야에 있는 기념관도 심만섭 님이 어렵게 땅을 구입해서 함평군에 기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념관을 세울 수 있었다.

남일 할아버지의 본명은 수(守) 자, 택(澤) 자로 대동보 항렬에 따르면 22세조 할아버님이시. 남일 할아버지는 한창 외세가 밀려오던 1871년(고종 7) 2월 10일(음력)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신암마을에서 태어나셨지(금호문중의 증언). 일찍부터 집안 어른들에게 글을 배워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능통하시고 문장에도 뛰어나셨단다. 이처럼 문명(文名)을 떨치셨기에 향리에서 면장(面長), 향교장의(鄕校掌議), 도의사(道議事) 등 중요한 일을 맡아 하셨어. 러일전쟁 후 일제(日帝)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할아버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곧 의병에 동참하셨어. 그 무렵 남일 할아버지는 서른 넷이셨는데, 서당의 훈장(訓長)으로 계셨기에 제자들에게도 모두 의병에 참여하도록 권하셨어.

처음에는 의병장 김준(金準)의 아우 김율(金律)의 부장(副將)이 되어 장성(長城)·영광(靈光)·함평(咸平)·남원(南原)·보성(寶城)·장흥(長興) 등지에서 적군과 싸워 많은 전과를 거두셨어.

그러던 중 김율이 전사하자 남일 할아버지는 1907년 대장으로 추대되어 군율을 엄히 하고 진용을 재정비하셨어. 이때 남일 할아버지는 선봉장에 강무경(姜武景)·임만선(任萬善)·장인보(張仁甫)를, 중군장에는 안찬재(安贊在)·박사화(朴士化)를, 후군장에는 노병우(盧炳友)·나성화(羅聖化)·최우평(崔友平)·김성재(金聖載)를, 도통장에는 김도숙(金道淑)을, 통장에는 유치선(柳致先)·공진숙(孔盡淑)을, 군량장에는 이세창(李世昌)을, 호군장에는 강달주(姜達周)·정관오(鄭官午)를, 기군장에는 장문연(張文然)·이덕삼(李德三)을, 서기 겸 모



남일 할아버지 영정

사에는 염원숙(廉元淑)을, 도포에는 장경선(張京先)·김판옥(金判玉)·선도명(宣道明)을, 도집사에는 최유승(崔有承)을, 모사에는 권택(權澤)·정영대(鄭榮兌)를 임명하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단다.

이를 보면 남일 할아버지는 의병 조직을 매우 치밀하게 구성하셨음을 알 수 있어. 의병들과 한 몸이 되어 그들의 성격과 능력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지. 또 군율(軍律)도 엄히 해서 민가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무단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 가축을 희생시키는 일 등 도덕을 어기는 일에 대하여는 준엄하게 처단하겠다고 공표하고 실천하셨어. 그러자 가는 곳마다 남일 할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군량(軍糧)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1908년 3월 7일 새벽 남평(南平)으로 일본군(日本軍)을 무찌르러 행군하던 중 강진면 오치동(吾治洞)에서 적군 수백 명과 마주치게 되어 밤 10시경까지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이때에도 적군 수십 명을 처치하고 무기를 많이 빼앗아 의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어.

이어 4월 15일 장흥(長興)·곽암(達岩)에서 적 3명을 사살하고, 6월 19일 남평 장담원(長淡院) 전투에서도 적 5명을 베었으며, 6월 25일 능주 노구두(綾州 老狗頭)에서도 적 5명을 처단하고 말 2필과 무기를 노획하는 등 큰 전과를 올리셨어. 그리하여 남일 할아버지는 전국에서도 이름 높은 의병장으로 꼽히시게 됐지. 당연히 일제의 표적이 되어 늘 쫓기셨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맨 앞장에서 지휘하셨어.

그래, 윤보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강인한 체력과 높은 정신력이 필요하지.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거야.

우리 남일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선비의 의병장이셨어. (다음 호에 계속)

청송심문 13정승 열전(12) 청천부원군 충혜공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1491 ~ 1558)

평생 겸손했던 백발 정승, 심문의 유일한 배향공신이 되다

형제와 자손 번창하고 왕후까지 나오자 손자 8명 이름에 '겸(謙)'자 넣어 경계



심재석

문학박사 / 대중회 이사

외군이 한양을 구석구석 파괴했지만 충혜공의 집만은 온전했기 때문이다.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제주목사를 지낸 충혜공이 제주의 목재를 실어와 집을 지었는데, 짚물에 오래 젖어 있다 보니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한다. 청양군(심의겸) 대은 임시 동궁(東宮)으로 사용됐다.

충혜공은 문과에 합격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나중에 중시(重試·당하관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던 특별시험)에도 합격했다. 충혜공의 4형제(연원·달원·봉원·통원)가 모두 과거에 합격했으니 가문의 위세와 영광은 비할 데가 없었다. 그러나 장손녀가 명종비인 인순왕후가 되면서 몸가짐을 조심했다. 영화가 지나치면 자칫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임시 종묘가 된 충혜공의 저택

임진왜란 직후 한양으로 환도한 조정은 종묘와 사직의 신주(神主)를 충혜공 심연원 할아버님의 집에 임시로 봉안했다.



충혜공 신도비(김포 통진). 비석 글자가 작고 얇게 파여 있다. 머릿돌의 조각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구름을 헤치는 두 마리의 용이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비문은 당대 문장가인 정사룡(鄭士龍)이 짓고, 조카인 심전(沈銓)이 전액을 썼다(2021.3.18, 탁본 심재석).

2. 주요 연보

서기	나이	주요연보
1516	16	생원시험 장원 합격
1533	43	의주목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10여 일 만에 군기시정(軍器寺正)으로 보직변경
1534	44	제주목사(명륜당 중수, 향학당 건립)
1539	49	예조참판으로 명나라에 사신(進香使)으로 감. 병조참의, 대사간 역임
1540	50	경상도관찰사
1549	59	좌의정
1551 ~ 1558	61~68	-명종 시절 8년간 영의정으로 일하다 1558년 5월 18일 사직하고 다음날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봉작 -같은 해 6월 19일 별세
1569(선조2)		명종 묘정(廟廷)에 배향



순창원(順昌園)은 인순왕후 아들인 순회세자의 묘이다.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내에 있다. 세자가 13세에 사망하자 선조가 왕위를 계승했다. 문관석(우측 표시)이 옛된 모습인 것으로 보아 순회세자의 형상인 듯하다(2021.3.3, 촬영).

3. 인순왕후, 사림(士林)의 시대를 열었으나 아들 순회세자를 잃다.

명종과 인순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순회세자가 13세에 사망하자 왕실과 심씨 문중은 큰 슬픔에 빠졌다. 충혜공은 61세 때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외증손자인 순회세자의 탄생을 보았고, 익효공(심강)은 53세 때 외손자의 사망을 지켜봤다. 당시 인순왕후는 32세. 그 상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명종이 후사 없이 서거하자, 인순왕후는 선조를 왕으로 낙점했다. 그리고 사심(私心)을 버리고 사림(士林)들에게 국정의 주도권을 넘겨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했다. 정국의 주도권을 훈신과 척신에서 도학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넘긴 것이다. 심문인 인순왕후가 역사에 남긴 커다란 정치적 업적이다.

4. 제주목사로서 교육에 힘쓰다.

공은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1536년 가을 제주향교 명륜당을 중수했다.

그때 지은 제주향교 <명륜당 중수기>에는 “안팎으로 담장이 무너져 있어 이 또한 돋우고 높였다. (...) 고향에서 일어나 훗날 조정에 서서 앞서간 선배의 업적을 뒤따르려면, 어찌 이곳에서 빛나는 인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썼다. 최우선적으로 교육에 힘을 쓴 것이다.

5. 가뭄이 심하자 수차(水車)를 보급하다.

수차는 양수기이다. 대표적인 것이 용골차(龍骨車), 즉 번차(翻車)이다. 명종 연간에 심한 가뭄이 들자, 영의정 심연원의 제안으로 수차를 제작해서 전국에 보급했다.



심연원 목사가 중수한 제주향교 명륜당(문화재청 홈페이지)

6. 을묘왜변(1555)을 처리하다.

공은 국방에 대해 해박해 북쪽 변방의 일을 익히 알고 있었다. 또 남방인 왜의 정세에 대해서도 정통해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했다. 을묘왜변(1555) 때, 영의정으로서 영암과 해남 일대를 노략질하는 왜구의 진압에 진력했다.

7. 청송 심문의 유일한 배향공신이 되다.

명종실록에 따르면 충혜공은 '겸손'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공은 부친인 사인공(심순문)이 연산군에게 처형당한 아픔을 잊지 못해 아버지가 처형당한 군기시 앞을 평생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 형제와 손자들이 출세하자 겸손한 자세로 자중하라는 의미에서 손자 8명의 이름에 모두 '겸손할 겸(謙)'자를 넣었다. 8겸 중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는 '심의겸' '심충겸'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올랐으나 평생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충혜공은 명종 묘정에 배향돼 청송 심문의 유일한 '배향공신'이 되었다.

총회탐방 : 온양공과 창원사복시정공종회를 찾아서

창원 감계리 집성촌에 면면히 이어온 290년간의 우애

아름다운 향리에 감의재와 감의사 짓고 송조돈목 실천



심재열

창원사복시정공종회 회장

1. 어떤 종회인가

우리 종회는 290여 년 전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로 입향한 18세조 사복시정공(司僕寺正公) 심선(沈鎔 · 1718-1788) 할아버지의 후손 모임이다. 사복시정공의 장남 이조참의공(휘 沅之 · 원지), 손자 이조참판공(휘 能七 · 능칠), 증손 동돈령공(휘 宜瑛 · 의영), 고손 통정의관공(휘 仁澤 · 인택) 등이 높은 벼슬을 지냈다. 본래 사복시정공은 경남 밀양시 상남면 어은리에 살았으나 1730년 경 밀양박씨와 혼인하여 낙동강의 잣은 흥수를 피해 밀양박씨의 친정인 현재의 북면 감계리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 후 후손들도 감계리를 세거지로 삼아 살아왔고, 현재 가보(家譜)에 올라있는 후손은 약 1500여 명이다.

2. 집성촌 감계리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 따르면 감계리(鑑溪里)는 본래 창원군 북쪽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내감리(內甘里) · 외감리(外甘里) · 감호리(鑑湖里)의 일부를 병합해서 감계리가 되었다. 1995년 1월 1일 창원군과 창원시가 통합하면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가 되었다. 감계리의 서쪽에는 청룡산(647.8m)이 높이 솟아 있고, 남쪽과 북쪽은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 양지바르고 물이 맑아 살기 좋은 곳이다. 이 마을의 아름다움은 감의재(鑑義齋)에 걸려있는 경환(璟煥)의 '감호 8경' 시문 중에 등장하는 용천, 달천, 감호 등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감의재 주변에 일가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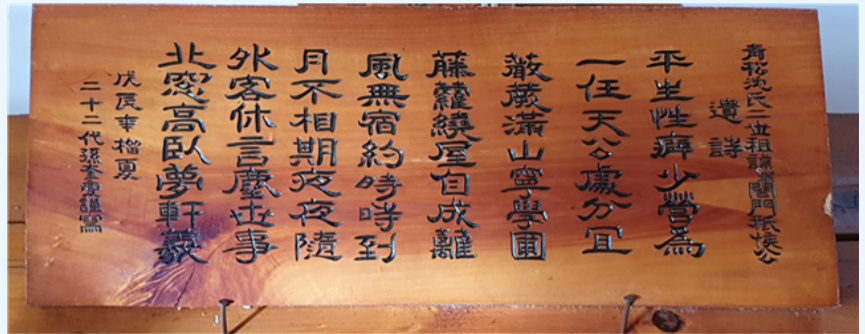
3. 감의재와 감의사를 짓다

청송심씨 온양공과 창원사복시정공종회의 초대 회장은 규섭 회장이었다. 향교유림이던 규섭 회장은 종원들의 제안에 따라 1985년의 역점사업으로 감의재를 건립했다. 종원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쌀과 벼 등을 내고 그렇지 않은 종원들은 노력봉사로 감의재 건립에 동참했다. 감의재의 벽면에는 2세조 연(淵) 합문지후공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시(遺詩)가 걸려있다. 그리고 감계리 일대의 8경을 찬양한 '감호8경'의 시도 벽을 장식하고 있다.

감의재 건립 후 창원시 북면 마금산 온천 일대를 주택지로 개발하면서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할아버지의 묘소도 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선 할아버지 등의 묘소를 한 군데에 모시기 위해 감의사라는 사당(祠堂)을 건립했다. 사당 건립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의 시간과 16여억 원의 자금이 들어갔다. 감의사는 선 할아버지의 위패를 중앙에 모시고 있다. 감의사에는 총 1790명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현재 500여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사당 옆 뜰에는 선 할아버지의 유적비와 무과에 급제한 22세조 인택 할아버지 공덕비, 사복시정공종회장으로서 감의재 건립에 크게 애쓴 24세조 규섭 회장의 공덕비가 서 있다.



감의사 전경



감의재에 걸려 있는 2세조 합문지후공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시

4. 복지증진에 노력하다

종회는 2009년 2월 8일 온양공과 창원사복시정공 종친회를 결성하고 정관도 만들었다. 매년 한차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시사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종회의 사무실은 창원시 북면 감계리 61번지에 있다. 종원의 자격은 18세조 선 할아버지의 후손 중 18세 이상의 아들이다. 종회는 일가들의 화목을 위해 복지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면 3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50만 원을, 80세 이상의 종원에게는 장수축하금으로 매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면 50만 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에 고의로 손질을 끼치면 민형사상 책임도 묻고 종원자격을 박탈한다.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 말고도 발언권과 의결권도 제한한다. 종인이 모여 매년 지내는 시제(時祭)는 음력 10월 13일 일요일이나, 아니면 13일 바로 앞 주 일요일에 올린다. 부산과 서울 등지의 종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종회의 아쉬움이라면 종손인 학섭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선대 할아버지의 관직 임명 교지 등이 6·25전쟁 때 소실된 것이다. 회장은 공덕비까지 세워준 초대 규섭 회장에 이어 2대 재호, 3대 재봉, 4대 재구, 5대 주섭 회장이 맡아왔다. 현재는 6대 재열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은 재일, 총무는 흥보(3대 재봉 회장의 장손), 재무는 재주, 감사는 재모와 흥보 씨(부산)가 맡아 봉사하고 있다. 종회가 배출한 인물로는 계섭(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1979), 재용(전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2005), 재경(창원시 5대 시의원, 2006~2010), 재양(창원시 제6대 시의원, 2010~2014), 재홍(국토부 이사관, 현 한국골재연구원 원장), 2013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바울(외무부 서기관) 등이 있다.

5. 송조돈목 활동을 더욱 힘차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조상을 숭상하고 일가들의 친목을 돕는 송조돈목의 활동을 더욱 열심히 전개할 계획이다. 젊은이들을 위한 뿌리교육 등에도 더 신경을 쓰고자 한다. 재열 회장은 "우리 종원들은 대부분 감계리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 집안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대단히 고맙다"며 "앞으로도 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입향조 할아버지의 위업을 받들고 후손을 위한 육영사업 등 종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리포터=심준섭 경운대 교수(항공교통물류학과)>



왼쪽부터 심인섭 고성중중 이사, 심흥보 총무이사, 심재모 감사, 심재열 회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재일 부회장, 심춘환 리포터, 심재립 이사, 심준섭 경운대 교수(전 영남일보기자)

일가기업 탐방... 경기 이천의 우현 도예연구소

흙 · 물 · 불의 종합예술에 혼을 불어넣는 도자의 '명인'

“일본에 도예명가 심수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우현 심인구가 있다”



자신의 예술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우현 심인구 명인

그의 가계는 5대째 이천 토박이다. 하지만 선조들은 도자기를 빚지 않았다. 유년시절의 그의 꿈도 목장을 경영하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거나 교육자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하지만 꿈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곳은 이천군청 민원실.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 1년 8개월 만에 공직생활을 접었다.

도예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유년시절의 추억 때문인지 모른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외가가 있었는데 도예가 집안이었다. 외가에 자주 놀러 가면서 도자기 빚는 일에 친밀감을 느꼈다. 버려진 사기그릇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동물 모양의 토기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아스라한 추억 속에 숨어있던 그의 재능이 슬금슬금 그의 등을 떠밀었다. 도예가의 길로 가라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성공했다. 우현 심인구 명인(60)의 이야기다.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에는 500여 개의 도요와 공방이 빼곡하다. 이천은 광주, 여주와 함께 도자기벨트로 불리며, 매년 도자기 축제가 열린다. 옛날부터 도자기산업이 발달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질 좋은 고령토와 풍부한 펄 감, 그리고 깨끗한 물이다.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 바로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마을이고, 명인이 운영하는 우현도예연구소도 그곳에 있다.

우현도예연구소는 심인구 선생이 1998년에 직접 지은 곳이다.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 굽는 도요(陶窯), 보여주는 전시실, 그리고 생활하는 살림집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명인은 도예가의 길로 들어서면서 일생도 걸고 성공도 하려면 학문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명지대 산업대학원 도자기기술학과를 졸업했다. 하지만 도예가의 길은 녹록치 않았다. 처음 10여 년간은 작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생계유지조차 어려웠다.

전기가 찾아왔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였다. 엑스포에는 80일간 80여 개국이 참가했다. 명인도 그곳에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았다. 본인 이름을 걸고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기회려니와 붓고차 3대 분량의 작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것이다. 자신감을 얻으며 어렵פות이 성공을 예감했다.

초기에는 황토옹기 제작공정 특허도 얻으며 건강옹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전통 창작 도자기에 대한 의욕을 누를 수 없었다. 전국 곳곳의 미술전람회와 공모전에 출품해서 상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도자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자기는 전통생활도자기와 현대생활도자기로 나뉜다. 우현 명인은 전통생활도자기인 찻사발과 달항아리를 전문적으로 빚고 있다. 특히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비대칭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특징인 조선 찻사발에 큰 애정을 느끼고 있다. 조선찻사발을 일본에서는 '이도다완(井戸茶碗)'이라고 부른다. 차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성(城) 하나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명품 중의 명품으로 꼽는 물건이다. 임진왜란을 '도자기전쟁'으로 부르고, 일본군이 술한 도공들을 붙잡아간 것도 근원을 따지면 바로 이 '이도다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우현 선생은 2016년 '한국예술문화명인'이 됐다. 2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예술적 업적을 성취한 사람에게 주는 영예인데, 그가 인정받은 분야가 도예부문 중에서도 다기(茶器)였다.

우현 명인은 2008년 명지대에서 열린 일본 최고의 도예명인 14대 심수관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심문 일가라는 관계를 떠나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어떤 난관에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쓰마야키(薩摩焼)의 본향인 가고시마의 심수관을 꼭 방문해서 도예의 기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유명인사다. 창작 활동과 공방운영 외에 다도(茶道)와 관련된 강의와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있다. (사)국제평화예술연합회장, (사)경기도박물관 가족협의회 이사, 대한시조협회 이천시지회장, 설봉다회 대표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에 용인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우현도예공방 용인점도 운영 중이다.

우현 선생은 명인으로 인정받던 2016년, 일본 오사카에 갤러리를 개관하고 2017년 2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차 시연과 함께 찻잔의 전시와 판매도 하는데, 이도다완을 좋아하는 일본사람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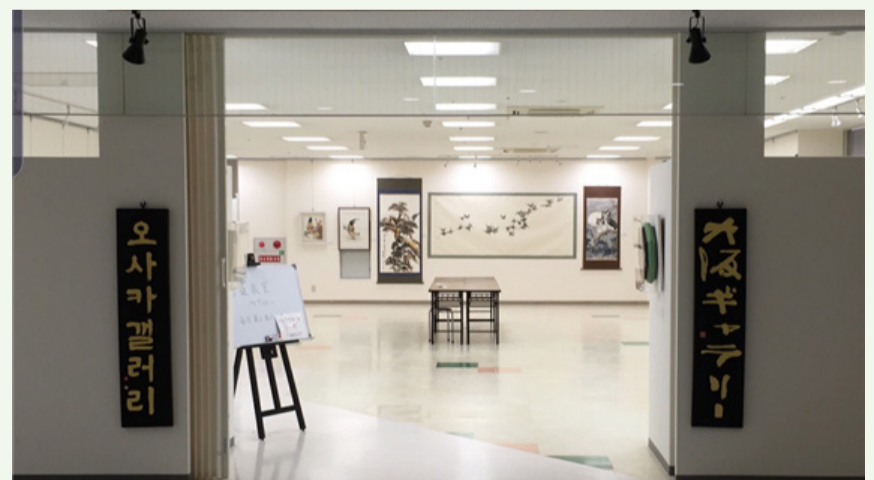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2020년 남북코리아 국제미술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지만,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본인의 도예가 30년을 정리하고 대표작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와 박물관 건립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우현 명인은 청송 심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중회 관계자 방문을 계기로 명문 청송심문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종회 발전과 일가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연락처: 경기도 이천시 원적로 780번길 113-22 심인구 010-3729-3145)

〈취재=심재성 편집위원(전 광명시 국장)〉



심인구 명인이 만든 이도다완 작품



심인구 명인이 운영중인 일본 오사카 갤러리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문학, 금융,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수장으로 심문 위상 높아

대구문인협회장 당선

(1월 20일)



심후섭 아동문학가

심후섭 회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1980년 '창주 아동문학상' '아동문학평론' 등에 동시가 당선돼 등단했다. 2015년 대구문협 수석부회장을 지냈으며 대구아동문학회장장과 대구수성문인협회장도 맡고 있다.(대구일보)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위촉

(1월 25일)



심인숙 중앙대 교수

1986년 발족한 '금융발전 심의회'는 지난 35년간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다. 심 교수님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4년 넘게 역임하는 등 금융정책과 감독 분야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다. 올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은 45명(연임 20명, 신임 25명)이다.(파이낸셜뉴스)

한국초중고유도연맹 회장 취임

(1월 26일)



심완보 회장

50년 유도 외길 인생을 살아오며 후진 양성에 힘써온 심 회장은 "한국유도연맹, 대한유도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유도인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연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경기일보)

제16대 서강대 총장 취임

(2월 1일)



심종혁 교수

심 총장은 1974년 서강대수학과에 입학한 뒤 동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미국 보스턴 웨스턴신학교에서 신학과 사목학 석사, 이탈리아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서강대 교수로 부임해 총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뉴스1)

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장 당선

(2월 23일)



심명순 씨

심 회장은 1995년 생활개선김제시연합회에 가입하여 총무 4년, 회장 4년, 도연합회 재무 2년의 경력으로 지역사회에 덕망이 두텁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3월 15일)



심재선 공성운수 대표

심 회장은 27년간 인천상의 의원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공성운수(주)는 1951년에 설립, 70년 물류 외길을 걸어온 인천의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육상운송의 물류전문기업이다. 심회장은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왔다. (인천뉴스)

마스크 밀착패치로 국제발명대회 은상



심수민 양

광주 자연과학고 식품과학과 3학년 심수민 학생이 세계발명지식재산권협회와 대만 정부가 주최한 '2020 가오슝 국제발명디자인박람회'에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해 마스크 밀착패치로 은상을 받았다.

소방청장 표창



심영보 소방교

충북 단양소방서 119구조대 심영보 소방교(29·사진)가 2020년 생활안전업무 유공자로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심 소방교는 119생활안전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 제거와 인명피해 방지, 시민수상구조대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2021 광남일보 신춘문에 평론 당선



김서라 작가

김서라 작가(곡성종회 심근자 씨의 딸)가 평론 '역사의 잔해와 무덤 순례자-오종태론'으로 2021년 광남일보 신춘문에 평론부문에 당선됐다. 김 작가는 1991년 광주 출생으로 2014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뉴스제공=심종식 곡성종회장)

- ◎ 심은서 제29회 공인노무사 합격(2020년 11월 20일) <소식제공=심웅섭 인천공파총회 총무>
- ◎ 심예린 씨, 충남대 상담심리학 교수 임용(1월 2일) <소식제공=심상현 도총제공파총회장>
- ◎ 심윤석 하남신문 기자, 광복회 시민운동가상 수상(3월 19일)
- ◎ 심월식 법무사: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49번길 8-17(연락처 010-9456-6013) <소식제공=심종식 곡성공파총회장>



박정빈 세종과학 예술영재교

청심장학생 박정빈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대표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제2기 장학생 박정빈(청송 심씨 외손, 세종과학예술영재교 3학년) 학생이 ISEF (International Science & Engineering Fair, 국제 과학기술 경진대회)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 박 군은 오는 5월 ISEF 한국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195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ISEF는 각국의 국내 대회를 거친 1500

여 명이 참가한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심사와 멘토링에 참여하며 2021 ISEF는 총상금 44억원을, 우승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

박군의 연구주제는 "정하중 용수철을 이용한 웨어러블 링거 제작"으로 이동식 링거 거취대는 계단을 오르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환자가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링거 장치를 고안한 것이다. 연구의 핵심은 링거액을 일정하게 투여하기 위해 대기압 대신 '정하중 용수철'의 힘을 적용한 것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용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식제공=심선영 성신여대 교수)

연초 인사발령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사무관 신규임용〉(2월 1일자)
 ◇기획재정부 ▲심민준 ▲심정민
 ◇행정안전부 ▲심환보
 ◇과기정통부 ▲심범석
 ◇해양수산부 ▲심수빈
 〈방위사업청〉(2월 1일자)
 ◇7급 임용 ▲심민정
 〈산업통상자원부〉(2월 1일자)
 ◇과장급 전보 △중견기업정책과장 심진수
 〈해양수산부〉(2월 15일자)
 △과장 전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심상철
 〈관세청〉(2월 15일자)
 ◇국장 전보 ▲부산세관 통관국장 심재현
 〈행정안전부〉(2월 19일자)
 ◇과장급(부이사관) 전보 ▲조직기획과장 심영재
 〈기획재정부〉(3월 5일자)
 ◇전보 ▲외환제도과장 심현우
 〈대전광역시〉(2월 11일자)
 ◇전보 ▲기획조정실 심창섭 ▲기획조정실 심지은 ▲과학산업국 심은우
 〈대전 동구〉(1월 27일자)
 ◇전보 ▲관광문화체육과 심용숙
 〈경상북도〉(1월 8일자)
 ◇5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심명섭
 〈경상북도〉(2월 1일자)
 ◇전보 ▲감사원 심인보
 〈세종시〉(2월 27일자)
 ◇전보 ▲시설관리사업소 심선혜
 〈경북 영양군〉(3월 1일자)
 ◇전보 ▲영양읍 심명희
 〈가스안전공사〉(1월 27일자)
 ◇전보 ▲대구경북지역본부 심현보

〈한국학중앙연구원〉(3월 1일자)
 ◇전보 ▲기획처장 심재우
 〈법무부〉(2월 1일자)
 ◇성남지청 ▲검사 심기하 ◇평택지청 ▲검사 심기호 ◇대전지검 ▲검사 심재신 ◇김천지청 ▲검사 심동선
 ◇법무연수원 신입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안양지청 검사 심요한
 〈부산경찰청〉(2월 5일자)
 ◇경정 전보 ▲공공안전부 정보분석계장 심재준 ▲중부서 정보안보의사과장 심영천
 〈울산경찰청〉(2월 5일자)
 ◇경정 전보 ▲울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심정현
 〈경기도남부경찰청〉(2월 5일자)
 ◇경정 승진 ▲안성경찰서 형사과장 심재호 ◇경정 전보 ▲의왕경찰서 생안과장 심승섭 ▲안양만안경찰서 경무과장 심학선 ◇경감 승진 ▲부천원미경찰서 심재수 ◇경감 전보 ▲수사부 수사심사담당관 심현진 ▲분당경찰서 심재욱 ▲화성서부경찰서 심용규
 〈강원경찰청〉(2월 5일자)
 ◇전보 ▲도경찰청 제1기동대장 직무대리 심기원 ▲도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심재성
 〈충북경찰청〉(2월 5일자)
 ◇경감 전보 ▲제천경찰서 심민섭
 〈충남경찰청〉(2월 5일자)
 ◇경정 승진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심종식
 〈전북경찰청〉(2월 5일자)
 ◇경정 전보 ▲전북청 시설계장 심명석 ▲전북청 여성청소년범죄수

사대장 심남진
 〈경남경찰청〉(2월 5일자)
 ◇경감 전보 ▲마산동부경찰서 수사심사관 심소영
 〈법관 인사이동〉(3월 1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협성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심현욱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현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현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심학식
 〈인천시교육청〉(3월 1일자)
 ▲체육건강교육과 심미선
 〈울산시교육청〉(3월 1일자)
 ◇유치원교사 임용 ▲상북유치원 심희연 ◇초등교사 전보 ▲백양 심지화 ▲연암 심재훈 ▲울산남부 심윤정 ◇중등교사 전보 ▲울산외고 김기현 ▲학성고 심유진 ▲다운고 심수보 ▲구영중 심은정 ▲함월고 심란숙
 〈경기도교육청〉(3월 1일자)
 ◇초등교장 승진·전보 ▲위례중앙초 심우찬 ▲영북초 심은행 ▲희망대초 심협섭 ▲윤슬초 심성남
 ◇초등교감 승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심보영 ◇초등전보 ▲김포구래초 심미란 ◇중등교장 승진·전보 ▲부곡고 심상보 ▲은여울중 심재성 ▲용인교육지원청 심상정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심현철 ◇유치원원장 승진·전보 ▲부천두리유치원 심화숙 ▲구산유치

원 심미현 ◇장학(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광명교육지원청 심연 ◇분청 과장 임용 ▲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심한수
 〈강원도교육청〉(3월 1일자)
 ◇장학사 전보 ▲삼척교육지원청 심웅섭 ▲원주교육지원청 심은하
 〈충남도교육청〉(1월 1일자)
 ◇6급 전보 ▲시설과 심재현 ◇7급 승진 ▲예산 심정선 ◇9급 신규 ▲서천 심지은
 ◇초등학교장 전보(3월1일자) ▲탄천초 심우길 ◇초등학교교사 청간 전보 ▲천안 심재은 ▲서산 심경옥, 심은선 ◇초등학교사(특수) 청간 전보 ▲아산 심정은 ◇중등학교장 전보 ▲음암중 심현택 ◇중등학교 교감 전직 ▲계룡고 심상주 ◇중고교 전보 ▲홍성여고 심재병 ▲아산중 심재희 ▲천안제일고 심훈보
 〈전남도교육청〉(1월 1일자)
 ◇5급 전보 ▲학생교육문화회관 심상미
 ◇초등 교장 승진 ▲조도초 심우창
 〈경남도교육청〉(1월 1일자)
 ◇초등교장 전보 ▲김해 율하초 심광보 ◇초등교장 승진(교감→교장) ▲창원예술학교 심규철 ◇전직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심우향 ◇교육행정 전보 ▲과학원 심재형 ▲경주교육지원청 심지영
 〈전북 전주시〉(3. 18일자)
 ◇4급 승진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심규문



임성호 청심장학회 운영위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타성받이가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이 된 이유

2019년 여름 심대평 회장께서 주신 전화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심씨와 결혼해 20년 넘게 살아왔으나 처가 가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본가 임씨 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청송심씨대종회가 설립한 청심장학회의 운영위원을 맡아 달라는 부탁에 처음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학회를 심씨와 결혼한 신랑과 아내, 사위와 며느리 등에게도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회장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고 청송심문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다. 이런 마음은 처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어졌다. 여러 차례 장학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감동

은 더욱 커졌다. 장학회에 쏟는 대종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놀라웠고, 심오택 장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사무국 간사들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 깊었다. 장학사업에 지원하는 인재들의 우수함은 또 다른 기쁨이다. 뛰어난 능력과 올곧은 인성을 가진 지원자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안도했다. 청심장학회는 정체성(正體性)과 개방성(開放性)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모범 사례이다. 청송심문이 주체가 되어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성씨의 경계를 넘어 국가와 세계를 이끌 인재 키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정신은 심씨가 아닌 필자에게 더 확 다가온다. 고유한 정체성과 열린 개방성, 양자의 조화는 오늘날 전환기적 상황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탈산업화, 정보화, 탈물질주의, 탈냉전 등 복잡한 시대 조

류 속에서 기존의 각종 사회 경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탈경계 현상은 많은 긍정적 효과를 수반하지만, 동시에 경계의 급격한 붕괴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갈등, 국정 교착, 불신 고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편협한 종족주의와 배타적인 집단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체성이나 개방성 중 하나만을 강조하기보다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청심장학회는 벌써 큰일을 하고 있으나 출범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첫 출발이 좋은 만큼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그 추동력은 정체성과 개방성의 조화에 있다. 향후 더 멋진 미래를 만드는 데 나도 심문의 사위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져본다.

지파총회 소식 - 이런 일 저런 일

청수회 11개 시도 운영위원들 안성에서 전국회의

지난 2월 24일 청수회 운영위원회를 위해 전국 11개시도의 운영위원들이 안성에 모였다. 운영위원들은 중·장년 단합으로 심문이 하나 되고 젊은 세대에게 뿌리와 자긍심을 일깨워 줄 미래지향적 과제를 놓고 토론했다. 심학섭 청수회장은 “이 모임의 가장 큰 의미는 어릴 때부터 심문의 긍지를 갖고 성장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심문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회, 각 종파 뜻과 방향에 맞게 나아간다.
2. 지역, 종교, 계파, 정치성, 나이, 직업, 성별을 뛰어넘는다.
3. 청수회 심볼, 10훈, 청수회가, 개요, 정관 등의 완성
4. 지역 위원장들의 기부금 거출과 회원관리 및 활성화. 고문, 감사, 전문가, 저문, 해외협력, 국내 협력 등의 조직력 강화
5. 세대별, 전문가별 각 분야 네트워크 강화
6. 소식지, 유튜브, 수첩, 회원소개 책자, 경조사 등 조직관리 강화
7. 치밀한 계획과 회장중심의단결, 지역위원장중심의조직, 사무처중심의활동으로점진적발전기대
8. 각 지역 종파 어르신께도 청수회의 취지와 뜻을 고하고 각 지역의 숨은 인재 발굴과 심문 집성촌, 역사고적 탐방
9. 가을 체육대회를 통해 심문과 결혼한 가족이 참여하는 심문단결행사 기획

(소식제공=심재희 청수회 사무총장)

전북 고창 심덕섭 사무실 격려방문(3월 9일)



선조유적지 탐사(3월26일)



◀ 전남 장성군 남면 내마길 22-5 양계사(4세조 정안공, 5세조 지성주사공, 6세조 애암공 사당) 경내에서 왼쪽부터 심대섭 지성주사공총회 회장, 심학섭 청수회 회장, 심정섭 지성주사공총회 고문,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재운 송암총회 회장, 심관섭 청수회 전북위원장 (사진=심연섭 지성주사공총회 총무)

◀ 앞줄 왼쪽부터 심진섭 경기위원장, 심상익 대중회 대외협력실장, 심재중 대외협력본부장,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차관), 심학섭 회장, 뒷줄 왼쪽부터 용 여사(덕섭 차관 부인), 심가영 아트네트웍스(주) 대표, 심정행 대구총무, 심향보 전북총회 총무, 심한철 전북부위원장, 심홍보 경남위원장, 심영석 2세조 합문지후공 유사, 심성업 전북위원, 심관섭 전북위원장, 심창선 선무공신증순 (사진=심가희 아트네트웍스(주) 대표)

[1면에서 이어짐]

지난해 11월 가고시마 지역을 관할하는 후쿠오카총영사관이 15대 심수관 일가를 명예총영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일본 외무성도 동의하면서 대를 이어 영예를 누리게 됐다. 15대 심수관 일가는 3월 16일 후쿠오카총영사관(총영사 이희섭)에서 명예총영사 위임장을 받았다. 이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심수관 선생이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5대 심수관 일가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430년간의 역사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많은 일본인과 재일한국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라는 말도 듣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상으로 아날로그방식을 고집하겠다”고 밝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작품

성과 전통을 중시하며 도자기를 빚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수관 일가는 4월 6일 가고시마현 미야마(美山)에 있는 공방에서 명예총영사관 현판식을 갖는다. 현판식에는 민단 가고시마현 본부 관계자, 가고시마현 지사, 의회 의장, 현 경찰본부장, 가고시마시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놓고 있어 이 자리가 모처럼 한일간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기고

청송경찰서장 시절, 지금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심덕보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희망대로 청송에 부임하자마자 시조산소에 참배를 드리고, 일가분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렸다. 일가분들께서는 “이제까지 우리 심문에서 청송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하시며 반겨주셨다. 역시 청송으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소임을 잘하지 못하면 일가분들에게도 누가 된다”는 부담감도 밀려왔다.

우연히 책장을 정리하다가 청송에 재직할 당시의 사진앨범을 뒤적거리게 되었다. 사진을 보면서 벌써 10년이나 지난 그 시절이 다시금 그리워졌다.

나는 2010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22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청송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경찰서장으로서는 첫 부임지를 선택할 때 나는 청송을 희망했다. 분향의 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

청송경찰서는 경찰관 110명이 근무하는 작은 경찰서이다. 나는 분향에서 소임을 잘 완수해야겠다는 각오로 이들과 같이 부대끼며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서장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파출소와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순찰도 같이 돌고 짜장면도 같이 먹으면서 ‘강소경찰서(작지만 강한 경찰서)’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줄이기 도내 1위’, ‘친절도평가 도내 1위’ 등 시골경찰서에서는 보기 드물게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청송에 근무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어디를 가나 일가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교류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일가의 집성촌인 덕천마을과 나아실 마을을 방문할 때면 변함없이 반겨주시던 일가 어른들이 있어 든든했다. 그래서 청송지역은 어딜 가나 우리 심문의 터전이라는 긍지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충전했다.

청송에서는 내가 향렬이 가장 낮았지만 각종 행사 때는 어김없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 특히 시조산소 향사와 종대산소 향사 그리고 경의재 향사 때 제관으로 참석했던 과분한 영광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당시 청송군청에서 찬경투와 운봉관 일대를 공원으로 정비

하면서 공원 이름을 공모했다. 이때 나는 ‘소헌공원’으로 명명해야 하는 근거들을 열거하며 개인적으로 응모하였는데, 이것이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분향에 대단한(?) 나의 흔적을 남겨놓고 온 것 같아 지금도 뿌듯하다.

이렇게 분향인 청송을 회상하면 나에게 좋은 일, 좋은 기억만 있고,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 후 나는 고향인 포항남부경찰서장과 포항북부경찰서장을 거쳐 영천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6월 말에 정년 퇴임했다. 퇴임 당시 청송군청에서는 나를 ‘청송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나는 청송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자랑스런 분향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행복했던 그 시절을 무용담처럼 은근슬쩍 이야기하기도 한다.

2019년에 개최한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 그때 위암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참석이 힘든 형편이었다. 지금은 건강을 거의 회복해 ‘한마음대회’가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분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고마운 일가분들!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가고시마 명예총영사 15대 심수관 선생의 메시지

한일이 진정으로 화합해야 우리의 눈물이 멈춥니다

다음 글은 이번에 일본 가고시마 명예총영사가 된 15대 심수관 선생이 2018년 말에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맞아 쓴 글이다. 그가 살아온 길과 그의 인생관이 잘 녹아있어 번역해 소개한다. 개인과 국가, 역

사와 예술이라는 거창한 문제가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지면 관계상 글의 일부는 잘라내기도 했으며 일부는 붙여서 편집했다.<편집자>

2018년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한 지 20년이 된다. 그리고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한일교류사업 '사쓰마야키 400년 축제'도 마찬가지로 20년이 된다.

사쓰마야키 400년 축제 당시, 나는 아직 15대 심수관이 아니라, 방구석에서 녹로(물레)를 돌리는 기술자에 불과했다. 다만, 이 꺾어지는 400년을 축하하는 일은 돌아가신 13대의 유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 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인적 네트워크 등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성공을 위해 그 좋아하던 소주도 끊고, 마을의 전면적인 협력을 얻어 작은 마을의 큰 축제는 대성공을 거뒀다. 그 축제를 끝내고 아버지는 내게 집안의 대표권(家督)을 넘겨주셨다. 내 나이 39세였다.

우리 젊은 세대는 그 이벤트를 시작할 때 논의를 거듭했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한국에서 불을 운반해 오는 것이었다. 초대 선조들이 조선에서 흙을 가져오고, 유약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가 돼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든 도자기는 모든 것이 조선의 재료와 기술이었고, 일본 것이라고는 그것을 구운 '불' 뿐이었다. 그래서 최초로 구워낸 도자기를 '히바카리 찻잔'으로 부르고 있다('히바카리'는 '불만'이라는 뜻으로, 불만 일본 것을 썼다는 뜻이다-역자).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흙, 일본의 유약, 일본의 기술로 만든 도자기를 한국의 불로 구워보자! 그 불을 얻으러 가자. 그리고 나는 한국방문의 사자(使者)로 뽑혔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불을 운반하게 됐다. 남원(남원은 1598년 심수관 가문의 초대 선조가 일본으로 끌려간 곳이다-역자)의 성스러운 산 '교룡산'에서 채화해서, 그것을 도기 화로에 넣고, 유교의식을 몇 차례 거친 뒤, 드디어 일본 가고시마로... 남원을 떠날 때는 정말로 많은 시민이 배웅해줬다. 그중에는 집안의 부엌 불을 가져온 아주머니가 "이걸 갖고 가라"면서 화로에 넣어 주기도 했다. 아무튼 커다란 이벤트였다. 육로는 부산까지 백색 경찰 오토바이가 선도해서 달렸다. 신호는 모두가 푸른색. 휴게소에는 많은 깃발이 나부끼고, 그곳의 시민들이 종과 북을 치며 기세를 올렸다. 드디어 부산에 도착하니 하얀 제복을 입은 부산해양대 학생들이 늘어서서 맞아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연습선 '한나라호'는 화로를 싣고 가고시마까지 운반해 주었다. 연습항해를 필리핀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화로를 운반하기 위해) 코스를 일본 주변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채화를 할 때부터 시종 여러 방송사가 매일 방송을 했기 때문에 가고시마에서도 점점 성스러운 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게끔 됐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불은 일본에 도착했다. 우리같은 축복을 받으며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 눈물은 단순히 계획을 달성했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아주 뜻깊은 그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불꽃은 지금도 우리 마을에서 계속 불타고 있다. 아버지는 그 불로 구운 찻잔을 오부치 총리에게 선물했다.

원래, 우리의 초대 선조 심당길(沈當吉)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붙잡혀 온 이후, 우리 집은 언제나 한일의 중간에 끼어 있었다. 때로는 공경을 받았지만, 때로는 멸시를 받았다. 칼과 창을 도자기 빛는 흙으로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나 자신도 여러 번 '조선징'으로 불렸고, 한국에서는 "400년의 일본 때를 씻어 내라"는 말도 들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두 나라의 편협한 자기애(自己愛)에 휘둘렸던 것이다.

그런데 20년 전, 두 사람의 정치 리더가 큰 결심을 했다. 20세기 일은 20세기 안에 해결하자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 선언은 5개 분야에서 43개의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이 선언은 두 리더의 상호 신뢰와 역량,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선언은 과연 그 후의 리더들에게 계승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양국에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진 정치가가 정말로 줄어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교류를 촉진한다 해도 정치의 중심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고 겉으로만 하는 교류를 반복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일방적이고 틀린 이미지는 언제까지나 불식할 수 없다. 헤겔이 말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서로 자립을 인정하는" 시대가 오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심씨 일가들은 2019년 2월과 2020년 1월 일본 가고시마현 미야마에 있는 심수관 공방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2019년 방문 때의 모습. 뒤에서 있는 사람 중 오른쪽에서 6번째가 15대 심수관.



심수관 선생은 2019년 6월 27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재일 동포 초청 만찬에서 본인이 만든 난초꽃 접시를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공지사항

<2021년 춘향제 일정(대중회 주관)>

- 4. 5(월) 12:00 : 시조 문림랑공(휘 심흥부)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보광산
- 4.22(목) 11:00 : 2세조 합문지후공(휘 심연) 전북 익산시 함남로 634, 남당산
- 4.24(토) 11:00 : 3세조 청화부원군(휘 심용)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224-26
- 4.26(월) 11:00 : 4세조 정안공(휘 심덕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 110
- 4.28(수) 11:00 : 정안공 배위 청주송씨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 5. 6(목) 11:00 : 4세조 악은공(휘 심원부)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길 89, 경의재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방침에 따라 최소 인원의 참여로 행사를 봉행코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대중회 종보 협찬 및 임원회비 계좌안내

대중회종보는 국내의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정보공유, 사적지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격월로 발행합니다. 구독 희망 일가분께서는 02) 2267-7857, 2267-9339 또는 각종 SNS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보 찬조금 · 임원회비 송금계좌 ☎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중회>

☎ 장학금 기부계좌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대중회 사칭 '대동보 구매요구' 주의하세요!

최근 대중회를 사칭한 야마위꾼들이 '대동보가 발간되었으니 20(30)만원을 송금하라'는 등 전화사기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전화를 받으실 경우 대중회에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중회 임원명단(2021.1.1. 기준)>

고 문 : 宜斗 相股 載鴻 宇永 動鍾 贊求 行鎮 正輔 相詰 相均 載金 (11명)
 명예회장 : 甲輔 (1명)
 회 장 : 大平 (1명)
 부 회 장 : 相國 東燮 相賢 相祐 大燮 晶求 茂燮 忠澤 錫山 揆華 長植 能光 玄根 在奎 載德 (15명)
 감 사 : 達勳 鍾赫 忠晉 (3명)
 집행부 : 彦泰(총무이사) 揆政(재무이사) 相億(문화이사) (3명)
 유 사 : 相福 勳燮 光燮 映錫 相國 哲裕 相昊 (6명) - 상국부회장 증복
 이 사 : (가나다순) (236명)
 서 울 : 光燮 光燮 揆先 極澤 技燮 德燮 輔均 奉燮 三圭 相慶 相球 相瑞 相祚 相烈 相學 相翰 相煥 英輔 玉仁 完圭 勇鎮 佑燮 雄燮 元植 翊燮 寅燮 載甲 載求 載德 載得 載奉 在燮 在臣 載岸 載烈 在雄 載崙 載正 正燮 種福 宗植 俊輔 昌輔 昌燮 春輔 春植 洪燮 亨求 (48명)
 경 기 : 甲澤 康燮 光輔 慶植 揆一 文錫 伯綱 相大 相英 相雨 上銀 相贊 相弘 錫希 錫鎔 成植 洵燮 洋燮 彦村 榮燮 英燮 完輔 五澤 愚寬 禹植 元輔 元輔 胤燮 應夏 恩錫 載根 載萬 載文 載聖 載烈 載憲 種澤 鍾洪 周澤 珍燮 泰玉 灌燮 炯燮 玄周 弘燮 興周 (46명)

부 산 : 萬仁 成燮 載德 載榮 (4명)
 대 전 : 揆善 揆益 東錫 奉燮 聖輔 逸燮 載運 載雄 載重 詰用 (10명)
 인 천 : 江水 揆成 大植 相圭 相振 錫文 元燮 宜杓 載錫 載善 駿求 炯茂 (12명)
 대 구 : 相培 成澤 楨燮 珍浩 忠賢 賢錫 護雄 勳 (8명)
 광 주 : 明燮 珉燮 相拍 愚慶 在均在 在益 在益 鍾德 鍾植 駿燮 鎮植 (11명)
 울 산 : 明輔 彦輔 (2명)
 강 원 : 東燮 東燮 東出 萬澤 尙求 相圭 相烈 相昭 相夏 成起 愚弘 載求 載鉉 載鎔 昌燮 春燮 春澤 夏燮 希燮 (19명)
 경 남 : 敬燮 揆實 明燮 龍泰 載瓊 載廣 在模 在尙 載華 載和 載華 黠輔 曾榮 鎮植 漢燮 (15명)
 경 북 : 光錫 揆宗 吉澤 相國 相東 相完 相燮 宜石 載根 在叔 載玉 載浩 載洪 弘燮 (14명)
 전 남 : 日燮 貞燮 正植 行燮 (4명)
 전 북 : 大燮 斗燮 相根 尙道 相榮 相哲 相獻 秀永 秀一 載政 載學 正秀 鍾根 鍾默 (14명)
 충 남 : 甲澤 英植 永鍾 完澤 相斗 載令 仲根 仲燮 漢植 行根 泓植 (11명)
 충 북 : 光輔 明彦 相慶 相榮 相鶴 相學 成來 良燮 殷燮 義輔 仁輔 載龍 載福 載榮 載鈺 載赫 載勳 (17명)
 해 외 : 相昱 (캐나다) (1명) 총 합계 : 276명

각종 찬조현황(2021.1.15 ~ 2021.3.15)

■ 각종 찬조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상조 경우크린텍 회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심현근 대전충남세종지구중회장	심대민 전.파라디이스산업 공동대표	심진호 광주부윤공파선산중회장	심원철 태성산건대표이사	심석산 정이공중회 회장	심대평 대중회회장	심재열 온양공파창원시복시정공중회 회장
장학찬조 500만원 2020년12월	중보·장학찬조 150만원 2020년12월	중보·달력찬조 50만원 2020년12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1월	중보찬조 100만원 2021년1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2월	중보찬조 50만원 2021년3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3월	중보찬조 100만원 2021년3월

중보찬조

- 100만원 창원사복시 정공중회(회장 재열)
- 50만원 정이공중회(회장 석산)
- 30만원 곡성중회(회장 종식)
- 10만원 심재립(부산)
- 심재운(동탄)
- 심재홍(청송)
- 심언촌(수원)
- 신천공파중회(회장 재필)

- 6만원 심훈중
- 5만원 심상경(서울)
- 심재근(울산)
- 심현석(대구)
- 3만원 심창보
- 심상훈
- 심찬구(용인)
- 심승남
- 심상훈

- 2만원 심재향
- 심우철(서울)
- 심지효(서울)

지로중보찬조 118,850원

147호 정정
10만원 상경(신천공파중회)→ 신천공파중회

장학찬조

- 200만원 심대평(대중회회장)
- 심원철 (태성산건 대표이사)
- 30만원 참관공중회 (회장 상두)
- 10만원 신천공파중회 (회장 재필)
- 5만원 심택
- 2만원 심재희

임원회비

- 20년 이사회비 5만원 심경식(아음동)
- 21년 부회장회비 30만원 심능광(청송) 심정구(부회장) 심석산(부회장)
- 21년 감사회비 20만원 심종혁(감사) 심달훈(감사)
- 21년 이사회비 5만원 심언촌(수원) 심상경(서울) 심대섭(익산) 심상두(충남) 심재문(안양) 심영섭(경기) 심현석(대구) 심춘식(서울) 심진섭(화성) 심석희(경기) 심태욱(경기) 심석용(경기) 심상근(전주)